



강북구의회  
GYEONGBUK DISTRICT COUNCIL

# 의정활동보도

2018년 5월 14일  
(월요일)

서울포스트 5면

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신상발언

## 왜곡된 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야



유인애 의원(번1·2동, 수유2·3동)은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“모항공사 모녀의 갑질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분노로 떠들썩하다”며 신상발언을 시작했다.

유 의원은 지난 1차 임시회의 시, 동료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중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한 강북구청 모 과장의 구청장 갑질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는데, 이후 모 과장은 감

사과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묻고 감사이유와 내용을 주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.

유 의원은 “만약 사실무근이라면 모과장이 거짓을 말한 것이겠지만 본 의원이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진실이 보였다”고 주장하고 현재 모 과장은 청와대에 본인의 억울함을 올리고 난 후, 감사과에 다녀오고 나서는 함구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의사회 구현, 그리고 정의로운 강북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라도 왜곡된 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